

[새신자예배 초대글]

누가 진짜 강한 자인가?

당나귀 고삐에 끄려가듯 우리에게
강한 힘에 이끌려 가고 싶은 약한 마음이 있습니다.
나서부터는 눈 먼 사람이 길 한 쪽에 버려져 있습니다.
길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화려한 부자가 강한 줄 알고
우리는 그를 따라갔습니다.
그러나 다른 한 분은 버려진 소경을 불쌍히 여겨
그를 일으키고 앞을 보게 해주신 분.
보잘 것 없어 보이는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없습니다.
그 분은 끝내 군중을 선동한 율법학자들과 로마군대의 힘에 의해
십자가형에 처해진 분.
우리는 어느 새 눈에 보이는 힘에 압도되어
그 분을 십자가에 못박으라는 군중들 틈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.

* 출처 : 은누리신문